#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사업 본격화

토지소유자 대상 사업 설명회 내달 손실보상·소유권 이전 시작 상반기 중 계획 인가 연내 착공

미래 순천의 문화·관광특구의 거점이 될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이 보상절차 추진 등 본격화하고이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연향 동과 해룡면 대안리 일원 488,459㎡(약1048 평)를 개발해 리조트와 호텔 등 대형 숙박시설을 유치하고, 공동주택, 주민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순천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라남 도 도시계획위원회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조건부 승인과 동시에 보상 절차 이행을 위한 감정평가 의 뢰를 마쳤으며,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또 보상 절차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원과 보상 업무 관련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 8일 토지소유자 대상설명회를 개최해 보상 관련 질의응답 등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2월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손실보상 및 소유권 이전을 빠르게 추진하고, 상반기 중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 연내 착공을 목표로



순천 연향들 도시개발 조감도.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한발 빠른 분양도 준비중이다. 순천만국가정원 등 차별화된 강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한편, 투자자별 맞춤형 설명회 등 조성 용지의 선분양을 통해 투자 재원 확보에도 나선다 는 방침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연향들은 순천만국가정원 과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접근성을 갖 춘 순천의 미래 중심지"라며 "순천만국가정원 연 계 명품 상업·주거 인프라 확충으로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겠다"라고 강 조했다.

한편, 연향들 일원은 국가정원과 마주한 순천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표현될 만큼 최적의 정주 ·상업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다양한 전략 산업군 입지가 가능해 향후 남해안벨 트 허브 기능을 수행할 최적지로 급부상하고 있 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 여수 장군도 민물가마우지 피해 막기 안간힘

방지 그물 설치・고압 물 세척 나서

'겨울철 민물가마우지 떼를 막아라'

여수시가 매년 겨울 장군도에 발생하는 민물가 마우지 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서식지 제거를 위한 덮개 그물을 설치했다.

여수시에 따르면 장군도는 민물가마우지 배설 물로 인해 수목 고사와 석축 백화현상이 유발돼 경 관을 크게 훼손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개체 수가 급증해 텃새화되면서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민물가마우지의 서식과 번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해 그물을 설치했 다. 아울러 향후 드론 방제작업과 봄철 고압 물 세 척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포획 작업, 조류 기 피제 살포 등을 실시해 왔으나 역부족이었다"라 며 "이번 대책과 더불어 장군도의 생태계와 경 관을 복원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 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 보성군 국내 최장 100m '설 달집태우기' 장관

#### 2000여명 감동 속 새해 기원

보성군의 '2025 설 맞이 달집 태우기 행사'가 지난 27일 율포솔밭해수욕장에서 열렸다. 〈사진〉 '2025 설맞이 달집태우기 행사'는 애초 1월1일 열릴 행사였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따라 연기된 뒤 설 명절을 맞아 국민 모두의 소망과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특히 '청사의 해'를 맞아 국내 최장 규모 뱀 모양의 달집을 제작해 참가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보성라이온스클럽이 주관했으며, 김철우 보성군수와 문금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군 민·귀성객·관광객 등 2,000여 명이 운집해 힘차고 밝은 새해를 함께 기원했다.

이날 오후 불꽃 타악 공연으로 시작된 달집태우기 행사는 새해 희망 메시지 전달, 전국 최장 규모 달집태우기, 드론라이트쇼, 그룹 레디스 공연, 보 성군립국악단의 피날레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00m 규모의 달집태우기

는 일몰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행사장에 모인 관광객들은 소망이 담긴 소원지를 붙여 완성 된 달집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풍년과 가족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700여 대의 드론이 펼치는 '드론라이트쇼'는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한 보성의 매력을 한껏 드러냈고, 방문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떡국 나눔 행사와 무료 차 시음 부스 를 운영해 방문객에게 따뜻한 정을 나눴다.

군은 행사 안전을 위해 100여 명의 안전관리 요 원을 배치했으며, 화재 및 교통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안전하고 질서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김철우 보성군수는 "힘들었던 지난날의 액 운은 달집과 함께 모두 태워버리고 꿈과 바람이 이 뤄지길 바란다" 며 "을사년 희망찬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해 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전인다 고 될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광양제철소 생산관제팀, 자매결연 마을 35년 봉사 '화제'

골약동 황곡마을 매년 3번씩 방문설 맞아 어르신 챙기고 골목 청소

광양제철소의 한 팀의 자매결연 마을에 대한 35년간의 사랑이 화제이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포스코 광양제철 소 생산기술부 생산관제섹션과 하늘사랑봉사단 이 설 명절을 맞아 자매결연 마을인 골약동 황곡 마을을 방문해 경로효친 사상을 실천하고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

생산관제섹션은 황곡마을과 자매결연한 1990 년 이래 35년간 매년 마을 곳곳에서 환경정화 활 동과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모정·정류장·우산각 등 마을 시설을 청소하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명절·연말·가정의 달(5월)마다 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안부를 묻고 다과와 선물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특히, 생산관제섹션은 매년 과일, 커피, 음료 등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며 어르신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고 지난 연말에는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열어 어르신들의 건강과 무병장수를 기원하기도 했다.

하정엽 황곡경모정 회장은 "바쁜 직장생활 속 에서도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 마을 구석구석을



광양제철소 생산관제섹션팀이 자매결연 마을인 골약동 황곡마을에 35년간 청소 및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해주고 간식까지 챙겨 주니 먼 곳에 사는 자식보다 더 낫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종호 생산관제섹션 리더는 "어르신들께서 자식처럼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니 방문할 때마 다 어머님의 정을 느끼고 돌아가게 된다"며, "올 해도 어르신들께 효도와 사랑을 실천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며 따뜻한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다.

1977셨다고 다짐했다. - 박옥병 골약동장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매년 잊지 않고 찾아와 훈훈한 이웃사 랑을 나눠주시는 생산관제섹션과 하늘사랑봉사 단 관계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마 을과 기업의 다양한 교류로 소중한 인연이 지속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생산관제섹션과 하늘사랑 봉사단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 며 경로효친의 정신을 실천하고, 농촌 마을의 어 려움을 나누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광양=김대수기자 kds@

### 고흥군, 7일부터 읍·면 순회 '군민과 토론회'

고흥군이 오는 7일부터 '2025년 군민과의 지역 발전 토론회'를 개최한다.

16개 읍·면을 순회하여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7일 점암·영남면을 시작으로 ▲고흥·두원(10일) ▲도화·포두(11일) ▲풍양·도덕(12일) ▲도양·급산(13일) ▲봉래·동일(14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고흥군의회의원 재선거(나 선거구) 지역인 과역·남양·동강·대서면은 4월 2일 재

선거 이후 별도 실시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민선 8기 군정 운영방향과, 2023~ 2024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2025년 주민숙원 사업, 읍면장 지역비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공영민 고흥군수 주재로 각 읍·면장이 발표하는 지역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되며, 제시된 의견들은 향후 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